

함께하는

FTA

October 2012
www.ftahub.go.kr ' vol. 5 '



추석 특집 - FTA와 함께하는 풍성한 명절맛이 FTA 결실 이제는 거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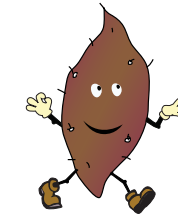
동아시아 vs 환태평양 경제통합 경쟁 심층 분석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당신이 취업난에 힘겨워할 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어려울 때, 수출을 돕겠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자금난을 겪을 때, 투자유치의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험한 세상 FTA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대학생이 꿈꾸는 FTA 세상

대한민국의 무역을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올해 열린 2012 FTA 활용 경진대회(관세청·중소기업청 주관)에서 대학생부문 대상을 받은 '해남고구마 유럽 원정기' 팀입니다. 대학생이 어떻게 FTA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무역학을 공부하다 보니 땅덩어리 좁은 한국이 먹고 사는 길은 무역 밖에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FTA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기 수업이 시작될 때 교수님께서 알려주셔서 FTA 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거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바로 지난해 수상작들의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건설업·제조업 일색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농업을 해보자.' 1차 산업은 FTA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지만, 한 발 앞서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FTA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작물이 뭐가 있을까 찾던 중 유럽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해남고구마를 알게 되었고, 실제로 농업에 도움이 되자는 결심에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해남고구마 측도 FTA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태였으나 전문인력이 없었고 FTA 활용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던 해남고구마는 저희의 거듭된 요청 끝에 열정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발돋움 날이 다가왔고, 대학생다운 참신함을 전해주고자 부직포로 고구마 탈까지 만들어 연극을 했습니다. 내용은 해남고구마가 FTA를 활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을 대현자(大賢者)와의 삼고초려 형식으로 풀어냈지요. 고구마 품목분류와 원산지 증명이 1단계, 해남고구마 조직 내 FTA 전문가 양성이 2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품질 확보가 3단계였습니다.

내심 입상을 기대하긴 했지만 뜻밖에도 대상을 받고 나니 참 얼떨떨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탄 양 교수님께서 학교에 축하 현수막까지 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낭보가 있었습니다. 함께 참가했던 팀원 중 한 명이 경진대회 직후 무역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인 저희 두 명도 곧 취업 전선에 뛰어들겠지요.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 경진대회 입상을 계기로 FTA 전문가가 되어 한국의 무역을 책임질 거니까요. 

정리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해남고구마의 대 유럽 수출은 해마다 100%씩 늘고 있었지만 FTA 활용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FTA를 활용하면 1억 원을 수출할 때 285만 원의 관세가 절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준수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06학번

남석배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06학번



2012 FTA 활용 경진대회 대학생 부문 대상 '해남고구마 유럽 원정기'팀

CONTENTS

www.ftahub.go.kr
2012 October vol.5



인트로 칼럼

커버 스토리

뷰 파인더

04 한국의 FTA 성적표와 향후 과제
FTA 성과 가시화...자신감 있게 나아가자

FTA와 함께하는 풍성한 명절맞이
FTA 결실 이제는 거둔다

06 한·미 FTA 발효 6개월의 성과
불황에도 수출 청신호...투자 유치도 늘어

08 해외 진출기업 속속 국내 복귀 '신호탄'
주얼리 기업 집단 U턴...무관세 효과 '톡톡'

10 급성장하는 한국의 농산물 수출
FTA 경쟁력으로 농산물 지속적 수출 증가

12 인터뷰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4 상표출원 농업경쟁력 브랜드로 승부한다!

15 카툰 FTA,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집시다!

16 FTA활용지원센터 탐방 인천FTA활용지원센터의 FTA 활용 성공 사례

18 강소농 천하 딸기 가공식품업체 한아름논산딸기랜드

19 중소기업 천하 고급 전사필름 제조업체 서울화학

20 FTA 컨설턴트 퇴직자 대상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22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인기

23 FTA 아카데미 대학생 FTA 프로그램

24 FTA 물가지수 한가위 물가 FTA가 해결사

25 글로벌 생생 통신 미국에서 체험한 한·미 FTA

스페셜 리포트

에듀 플러스

이슈와 토픽

올 댓 라이프

별별랭킹



26 동아시아 통상 환경 진단 및 전망
한·중·일 FTA로 태평양 시대 주도해야

28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경쟁과 한국의 전략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실리 찾아야

30 FTA 스쿨 FTA 활용 필수 상식 완전 정복

32 FTA 뉴스

34 Film® 세계를 매혹시킨 한국 영화의 힘

36 Thanksgiving® 추석과 닮은 듯 다른 세계의 추수감사절

38 Alcohol® 차세대 한류, 이제는 술이다

40 주요국의 FTA 교역 비중 랭킹 6





한국의 FTA 성적표와 향후 과제

FTA 성과 가시화...자신감 있게 나아가자

한·EU FTA는 발효 이후 1년3개월, 한·미 FTA는 발효 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봤을 때는 성공적인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재정 위기와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FTA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고 있다.

글 송하성 경기대 교수(경제학 박사/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자문위원/한·EU FTA 자문위원)



한국은 일찍부터 WTO와 GATT 협정에 기초한 점진적 세계무역자유화과정의 최대 수혜자로 적극적·능동적 개방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고,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 세계 통상 환경은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WTO(다자주의) 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FTA(양자주의) 체결이 증가하고, 이런 추세는 2000년대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이 거대 경제권과의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다자주의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기존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 경제권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은 무역자유화의 수혜자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은 IMF 구제 금융 시기인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다.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발효되면서 한국은 역사적 첫 발을 떼게 된다.

칠레와의 FTA로 경험을 쌓은 한국은 이어 2004년 1월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개시해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되었고, 2005년 1월 협상을 개시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과의 FTA는 2006년 9월 발효되었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를 교두보로 싱가포르가 포함된 아세안(10개국)과의 FTA 체결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한·아세안 FTA의 경우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 서비스협정은 2009년 5월, 투자협정은 2009년 9월 발효되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FTA 전략은 속도를 내기 시작해 2010년 1월 한·인도 CEPA, 2011년 7월 한·EU FTA, 2011년 8월 한·페루 FTA,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에 이른다. 이 외에도 올해 8월 한·터키 FTA가 서명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한·콜롬비아 FTA가 가서명됐다.

지금까지 한국의 FTA 성적표는 합격점을 줄 수 있다. 올해 7월 한·EU FTA 발효 1주년을 기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대 EU 수출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12.1% 감소하였으나 FTA 혜택(관세 인하)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2%가 증가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불황에도 불구하고 FTA가 한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한 것이다.

특히 FTA 발효 후 1년 동안 EU가 한국에 투자한 액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가 증가했다. 관세 효과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동시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FTA 효과 중의 하나다. EU의 대 한국 투자 중 특히 생산시설을 직접 세우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42%가 늘어난 것은 국내 일자리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미 FTA는 현재 발효 후 6개월을 넘기고 있어 성급히 평가하긴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긍정적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4개월 동안(2012년 3~7월)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144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특히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EU, 중국, 일본이 FTA의 가격 이점과 전략적 거점으로서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 대 한국 투자가 향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된다.

10억1,000만 달러 감소한 반면, 대미 무역수지는 16억8,000만 달러 늘어난 64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 한국 투자도 FTA 발효를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FTA 발효 전인 올 1분기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전년 대비 28.9% 늘어났다. 특히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EU, 중국, 일본이 FTA의 가격 이점과 전략적 거점으로서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 대 한국 투자가 향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FTA는 국제 교역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 한국이 주도해야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환태평양 경제통합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재 한·중 FTA, 한·중·일 FTA, 아세안+6, TPP 등 세계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무역 개방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는 지금까지의 FTA와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 5월 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7월 3~5일 제주도에서 2차 협상, 8월 22~24일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3차 협상까지 이뤄진 상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2011년 기준)로 미국(10.1%), EU(10.0%)를 합한 것보다도 크고, 수입 비중도 16.5%에 이른다.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영토는 주요국 중 현재 3위(57.3%)에서 멕시코를 제치고 칠레에 이은 2위에 올라서게 된다.

한국이 맺은 FTA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기대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아진다. 이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어느 정도 FTA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까지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교육·컨설팅·상담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 FTA 활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출 증가와 일자리 증가라는 FTA 효과 또한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E]



한·미 FTA 발효 6개월의 성과

불황에도 수출 청신호...투자 유치도 늘어

발효 6개월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대미 수출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된 수혜 품목은 대미 수출이 13.5%나 증가했다.

글 장승규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미 FTA가 발효된 을 상반기 한국의 대미 공작기계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08% 증가했다.

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대 세계 섬유와 신발 수출은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은 섬유가 7.5%, 신발은 무려 31.5%로 큰 폭으로 늘었다.

FTA 수혜품목, 수출 크게 늘어

비단 공작기계와 섬유·신발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9월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낸 ‘한·미 FTA 6개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4개월 간(2012년 3~6월) 미국의 수입 통계를 바탕으로 FTA 수혜품목(관세 인하 품목)과 비수혜품목(무관세 및 관세 인하 유예 품목)으로 나누어 수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난 3.1%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를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으로 구분해 보면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1.7% 감소한 반면, 수혜품목의 수출은 13.5%나 증가했다.

주요 수출 증가 품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 부품의 관세 2.5%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주요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큰 폭

9월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을 상반기 한국의 대미 공작기계 수출은 5,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8%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전체 공작기계 수입액이 7억9,000만 달러로 6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한국 업체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미국 공작기계 시장은 2009년 경기침체로 판매부진을 겪은 뒤 2010년 이후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4.2%에 달하던 관세가 사라지면서 한국산 공작기계의 가격경쟁력과 인지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사향산업으로 꼽혔던 섬유산업과 신발산업은 한·미 FTA를 계기로 수출이 늘어나며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섬유 수출은 77억6,300만 달러, 신발 수출은 2억2,2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세계



으로 증가했다. 기어박스(139.6%, 이하 수출증가율), 차체 부분품(34.2%), 브레이크(15.1%), 서스펜션(23.2%) 등이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을 선도했다. 머플러 및 배기관(481.3%), 차축(379.8%), 에어백(314.3%) 등은 FTA 발효 전 대미 수출이 많지 않았으나 FTA 발효를 기점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뛰어 세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석유화학 제품은 최대 6.5%의 관세가 인하되기 시작하며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ABS수지(46.4%), 폴리에스테르수지(23.1%), 에폭시수지(15.3%) 등이 석유화학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일부 석유화학 제품과 일부 합성수지의 경우 본래 한국산 조달 비율이 많지 않았으나 FTA 발효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기전자 품목도 FTA 이후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변성기, 통신용 전선,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는 와이퍼(260.1%), 가정용 믹서(214.2%), 계전기(171.4%) 등도 큰 폭으로 수출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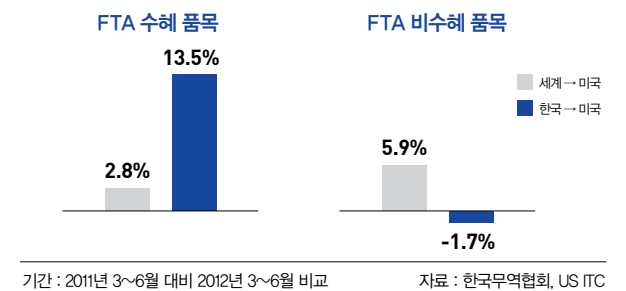
단가가 큰 일반기계는 관세 철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 엔진 등 내연기관(2882.2%), 금속절삭 가공기계(103.7%), 펌프(66.1%), 가스터빈의 부분품(81.5%), 프레스 금형(134.4%) 등은 2.4~4.4%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금속성형 가공기계(1,257.0%), 금속 절삭 가공기계(388.9%), 금속 공작 기계 부품(1,057.0%)과 기계 펌프(3519.7%) 등도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관세 수준이 높아 한·미 FTA의 관세 철폐 효과가 큰 섬유, 의류 및 신발 등도 최근 대미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편직물(21.4%), 카펫(18.0%) 등 섬유제품, 장갑류(54.0%)의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인조섬유사(35.9%) 등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텐트 및 캠핑용품(506.0%), 기타 신발(103.6%), 여성용 바지(95.0%), 남성용 셔츠(94.0%) 등은 수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미 FTA 활용률도 꾸준히 증가세

한·미 FTA는 무역수지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12년 3~7월 우리나라의 대 세계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10억1,000만 달러 감소한 144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대미 무역수지는 64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6억8,000만 달러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수입 증가율



한·미 FTA 수혜품목의 경우 미국의 전체 수입 증가율에 비해 한국에서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혜품목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다.

2012년 3~6월 대미 수출 호조 품목

산업	분류	기존 관세율	FTA 적용 관세율	수출 증가율
자동차부품	서스펜션	2.5	0	776.1
	에어백	2.5	0	314.3
석유화학 (합성수지)	ABS수지	6.5	5.8	46.4
	폴리프로필렌	6.5	4.3	348.8
전기전자	변성기	3.0	2.0	2,446.0
	믹서	4.2	3.7	214.2
일반기계	금속 절삭 가공기계	4.4	0	103.7
	기계펌프	2.3	0	3,519.7
	금속성형 가공기계	4.4	0	1,257.0
섬유 의류 신발	인조섬유(폴리에스테르 섬유)	4.3	0	35.9
	텐트 및 캠핑용품	8.8	0	506.0
	기타 신발	8.5	0	103.6

수출 증가율은 2012년 3~6월의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US ITC

최근 주춤했던 미국의 대 한국 투자도 FTA 발효를 계기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FTA 발효 전인 을 1분기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전년 대비 28.9% 늘어난 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활용률은 지난 4월 58.3%에서 5월 63.8%로 5.5%포인트 증가한데 이어 6월에도 69.2%로 전월보다 5.4%포인트 뛰었다.



해외 진출기업 속속 국내 복귀 '신호탄'

주얼리 기업 집단 U턴...무관세 효과 '톡톡'

한·미, 한·EU FTA 발효로 국내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중국 청도에 진출했던 한국 주얼리 기업 14개사가 20년 만에 '집단 U턴'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U턴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 박진영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국내 'U턴'이 시작됐다. 중국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1990년대부터 중국 청도에 진출한 한국 주얼리 기업 14개사가 20여 년 만에 한국으로 집단 U턴한다. 이번 주얼리 기업들의 U턴은 정부가 'U턴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공식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사례로, 최근 국내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국내 투자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U턴하는 14개 기업은 지난 8월 29일 전북도와 '국내 U턴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고 730억 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전북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에 10만7,404㎡(약3만2000평) 규모

의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이들이 새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한·EU FTA 발효로 국내 투자 여건 개선

국내 주얼리 기업들의 상당수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썬 인건비와 공장 부지를 찾아 중국에 진출했다. 현재 중국 청도에는 한국 주얼리 기업 400여 개사가 주얼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한 인원만 5만 명에 이른다.

특히 국내 U턴을 결정한 14개 기업은 한신공예품, 한미래, 하이주얼, 베스웰, 한성, 미노아, 보우실업, 정보, 유영, 유미체인, 공인체인, 골든벨, 미광, 진화경금속 등으로 청도 지역 주얼리 기업들 중 대표적 기업들이다. 가장 규모가 큰 한신공예품의 경



우, 중국 현지 고용인원이 1,300여 명, 연간 매출액이 300억 원에 이르고, 생산 제품의 80% 이상을 미국 또는 EU로 수출하고 있다. 나머지 기업들도 현지 평균 고용 인원이 평균 400여 명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도 2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올해 3월부터 지식경제부, 코트라(KOTRA), 전 북도와 협의를 시작, 6개월 간 15여 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협의를 한 끝에 국내 U턴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국내로 U턴을 결심하게 된 것은 최근 중국 내 인건비가 매년 18% 이상 오르는가 하면, 위안화 절상 등으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미, 한·EU FTA 등의 발효로 국내 투자여건은 개선되었다. 원산지를 기준으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율은 중국은 11%이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에서 수출할 때는 관세가 0%다.

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선호하는 미국 바이어들의 요구로 국내 생산이 더 유리해진 측면도 있다. 이들 기업은 향후 중국에서는 기존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에서는 고가제품군을 생산해 미국, EU 등에 수출하는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각종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혜택도 풍성

전북도는 이번에 복귀하는 14개사의 국내 복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추가로 36개사를 비롯해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201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 기업까지 50여 개사의 국내 복귀가 모두 완료되면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을 포함해 1만3,000명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9,000억 원의 수출이 예상되는 등 익산시가 세계적인 주얼리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기업들의 직접투자효과뿐만 아니라 주얼리기업에 고용된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연간 2,340억 원의 소득세 및 소비증대 효과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얼리기업의 국내 U턴을 위한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홍석우 지식경제 부장관은 축사에서 "금번 동반 복귀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현재 U턴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앞으로 한·미, 한·EU FTA 발효에 따른 U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U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T**

중국 주얼리 U턴 기업 현황

기업	현지 매출액 (억 원)	현지 고용 인원 (명)	국내 고용 계획 (명)
한신	300	1,369	400
한미래	300	700	400
하이주얼	300	300	350
베스웰	200	700	300
한성	200	600	250
미노아	200	600	250
보우실업	200	700	350
정보	200	500	200
유영	100	100	50
유미체인	100	100	50
공인체인	100	150	50
골든벨	100	100	50
미광	100	300	100
진화경금속	300	400	200
총 14개	2,700	6,150	3,000

출처 : 지식경제부

U턴 기업 인센티브 세제지원 적용기간 3년 연장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 기간이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해외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해외생산시설 철수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 양도·폐쇄 기한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내에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소득·법인세를 5년 간 50% 감면해준다.

U턴 기업이란?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
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② 국내 사업장이 이미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거나 부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단, 사업장은 생산(제조) 시설이 있는 제조 사업장에 한함.



급성장하는 한국의 농산물 수출

FTA 경쟁력으로 농산물 지속적 수출 증가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아세안 등 FTA 체결국으로의 농수산물 수출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FTA가 농수산물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 이홍표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 체결로 농수산물 수출이 새 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유는 농수산물에 대한 각국의 높은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우리 농산물의 세계 수출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9%나 늘어났다. 액수로 치면 4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봐도 우리 농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늘어난 19억9,000만 달러나 된다. 이 같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하반기 역시 전년의 실적을 무난히 뛰어넘을 기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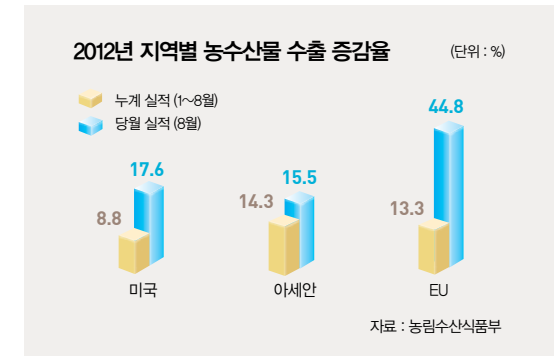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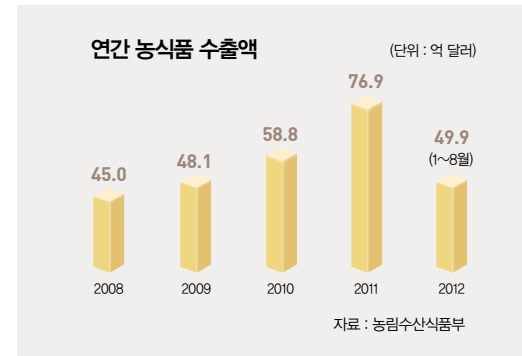
농산물 수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FTA 효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우리 농산물의 수출국 중 FTA 체결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까지 늘어났다. 즉 그간 우리의 농산물 수출이 대일본 수출에 주력하고 있었다면 FTA효과로 시장이 다양화됐고 규모 역시 커졌다는 의미다.

미국, EU 등 FTA 체결국으로 수출 꾸준히 증가해

먼저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대 아세안 농산물 수출은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아세안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2007년 6월 FTA 발효 후 2008년 14.2%, 2009년 20.4%, 2010년 50.7%, 2011년 22.4%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2012년 상반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7.7%가 늘어났다.

대미 농산물 수출도 꾸준한 증가세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올 상반기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미국 지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8%가 늘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농산물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따져본다면 결코 낮춰 볼 수 없는 수치다.

EU 지역 역시 한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대상 지역으로 발돋움 중이다.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발효 전



1년(2010년 7월~2011년 6월)과 발효 후 1년(2011년 7월~2012년 6월)을 비교했을 때 17.6%의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다. EU 지역의 소비가 남유럽재정위기로 급격히 위축됐다는 사실을 따져본다면 유럽인들 사이에서 우리 농산물의 인기가 크게 높아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한국 농산물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9월 초 발표된 농림수산물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간의 농산물을 포함한 농림수산물 수출은 6억 달러를 기록했다. 실제로 우리와 FTA를 맺은 미국, 아세안, EU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아세안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6%, 15.5% 늘었으며 EU로의 수출은 무려 44.8%나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00억 달러 수출도 기대해 볼만하다. 실제로 농수산물 수출은 매년 20%~30% 가량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 같은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7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FTA로 인한 관세 철폐가 수출 증가의 일등 공신

전문가 및 농민들은 한국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품질의 향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은 관세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다. 한국무역협회는 "FTA를 활용한 관세 철폐는 농산물 바이어의 관심을 유도해 수입선을 한국으로 돌리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한·EU FTA는 한류 열풍과 함께 대 EU 농산물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농민들은 현재 추진 중인 중국과의 FTA 등도 농식품 수출의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국 간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낮아지고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기회가 된다. 약 13억 명에 달하는 중국 인구의 1%만 한국산 농식품을 소비한다고 하면 그 수효는 1,3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한국이 고급 농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상류층들은 안전성 문제로 한국산 먹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E]



세계에서 주목받는 K푸드

한국산 먹거리를 뜻하는 'K푸드'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01년 29억 달러에 불과하던 농수산물 수출은 10년 후인 2010년 59억 달러, 지난해는 7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발맞춰 농수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해외에 한국의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7개국 10개 지역에 해외 aT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T센터를 활용하면 해외 시장정보, 판촉사업 지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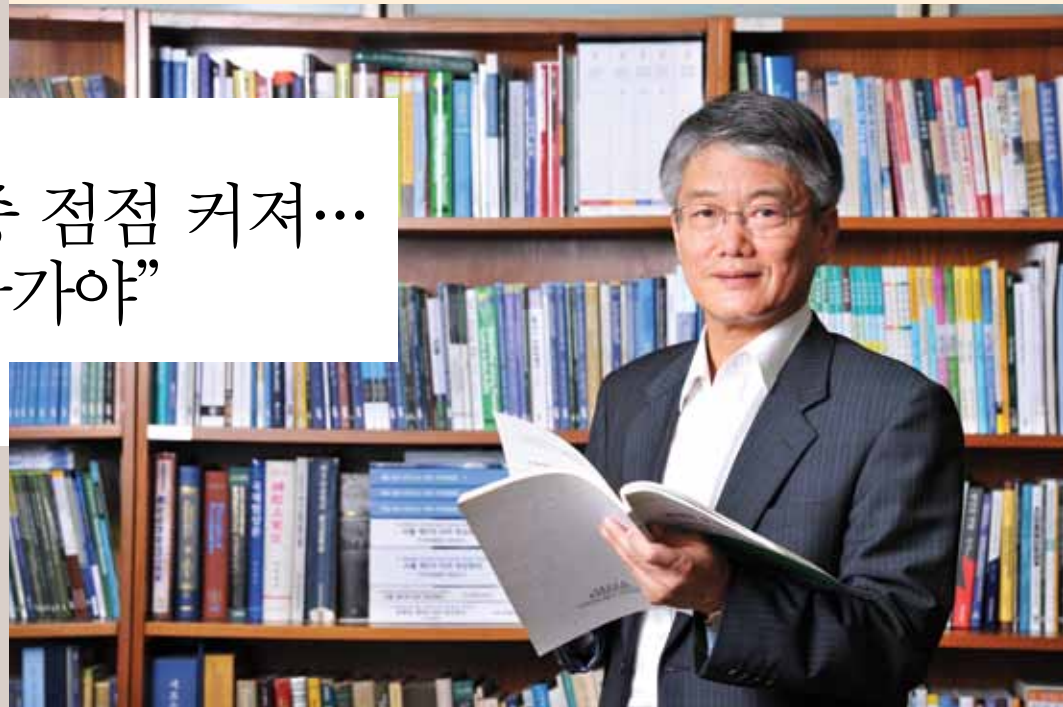
한편, aT는 한·미 FTA 발효 100일을 계기로 지난 6월말과 7월초 한 달 간 한국산 농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미국에서 열었다. 미국의 가장 큰 소비 지역인 뉴욕과 LA에서 동시에 열린 이 행사는 각각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현지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뉴욕은 모두 29개 매장에서, LA는 모두 55개 매장에서 한국산 농수산물품이 소개되며 현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FTA 무역 비중 점점 커져... 한국이 치고 나가야”

총리실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름 그대로 '대외'경제에 대해 자문하는 정부의 싱크탱크다. WTO, FTA와 같은 국익에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물론 한·중·일 경제통합, 통일 이후의 북한 문제와 같은 지역 문제에서부터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나 유럽 재정위기 등의 글로벌 금융 이슈까지 폭넓게 다룬다. 치열해져가는 세계 무역전쟁 한가운데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FTA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채욱 원장에게서 들어보았다.

글 우중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FTA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럴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에 자원에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 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하고 외화를 벌기 위해서는 해외에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이 협소해 수출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죠. 결국 한국은 해외 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입장인데 가장 좋은 수단이 FTA입니다. 해외에 물건을 판다는 건 타 국가와 경쟁해야 한다는 건데, 경쟁 요소는 품질과 가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FTA는 필요합니다. 한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자원 등 필요한 물품을 값싸게 들여오는 것도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국민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FTA의 세계적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1990년만 해도 전 세계 FTA는 46개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면서 급속히 늘어나 지금은 338개가 됐습니다. 각국이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양자주의가 개별 국가로서는 전략적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GATT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WTO의 155개 회원국은 2000년대 들어 도하라운드 이후로 무역자유화를 위해 협상을 했지만, 회원국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는 이르지 못하면서 WTO의 다자주의의 위상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FTA를 활용하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FTA를 이용한 무역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보니 오히려 FTA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무역 1조 달러를 열었고 전 세계 무역의 중심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에 맞는 큰 시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FTA를 맺고 싶어 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지만 일본, 중국, EU, 아세안 등 한국의 경쟁국들은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전 세계에 한국의 시장 입지를 굳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일본·중국·EU는 우회적으로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를 늘릴 겁니다.”

현재 협상중인 한·중 FTA를 포함해 향후 한국의 FTA 전략은 어떤가요?

우선 현재 협상 중인 국가부터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FTA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거대 경제권, 선진국과는 FTA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고, 이후로는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신흥국과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 경우 관세 인하 같은 높은 수준의 FTA보다는 자원 활용 등 경제 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도 과제입니다. 현재 '아세안+3(한·중·일)'에 호주·뉴질랜드·인도까지 포함되는 '아세안+6'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미 수출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과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은 생활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세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입니다. 미국과 FTA를 맺고 싶어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지만 일본, 중국, EU, 아세안 등 한국의 경쟁국들은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시장 입지를 굳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일본·중국·EU는 우회적으로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를 늘릴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로 정책·제도가 투명합니다. 미국의 경제체제에 적응하다 보면 한국의 제도나 정책도 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한·미 FTA 발효 후의 성과를 보더라도 4개월(2012년 3~7월) 간 대 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은 4.4% 증가했습니다. 특히

3~6월 동안 FTA 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은 13.5%나 증가하는 등 한·미 FTA가 대미 수출에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FTA는 무역수지 증대와 외국인투자 유치 그리고 제도선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부품·소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그것을 조립해 선진국에 수출하는 무역구조입니다. 중간재 수출액만 보면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위주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면 그간 수출하던 중간재는 이제 안 먹힙니다.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해야 하는데, 내수 시장만 보면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입니다. 지금 5위인 대만이 한국을 앞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한국이 앞선 경쟁국들과 우위를 차지할 수단이 마땅히 없습니다. FTA를 체결하면 한국이 먼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되고 시장 점유율을 빨리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대북관계에서도 중요한데, 중국과 함께 북한 경제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FTA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FTA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FTA를 맺는다고 중소기업·자영업·농민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우위를 가진 중소기업은 혜택을 볼 것이고, 대기업 수출이 늘면 납품사도 수출이 늘게 됩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산품이나 가공식품은 중국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중국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국 식품 소비가 늘어날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값싼 농산품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을 수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수입할 때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얻은 이익을 나눠야 합니다. FTA 활용만큼 피해구제나 구조조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피해를 보는 쪽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의 위상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FTA 발효 이후 영농법인 상표출원 급증세 농업경쟁력 브랜드로 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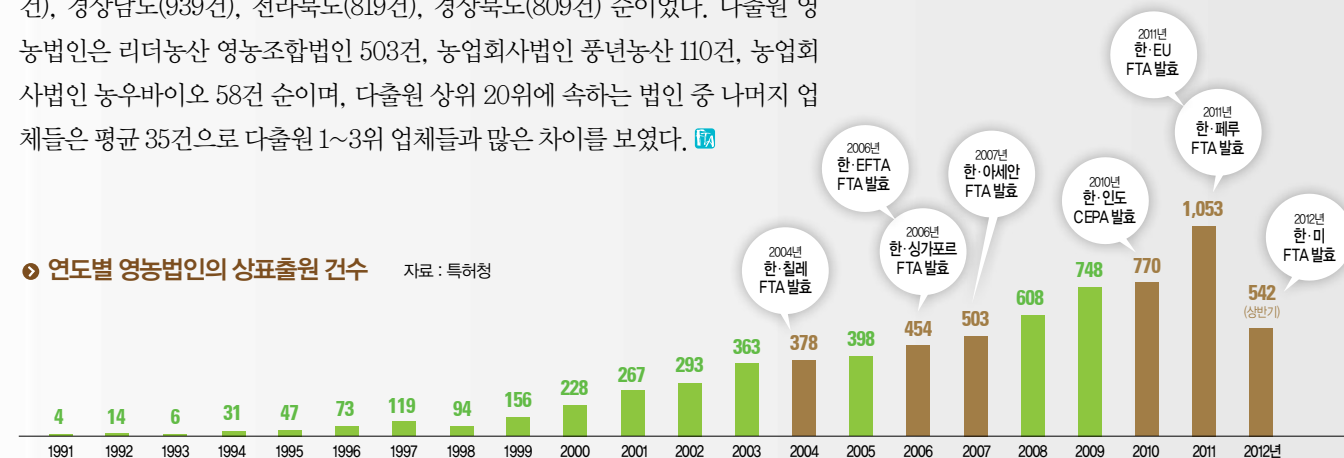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상표출원이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영농법인의 상표출원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11년간 전체 출원건수가 77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530건이 출원되어 영농법인의 상표출원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한·칠레 FTA 이후 연평균 614건 출원

특히,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한·싱가포르 FTA(2006년), 한·아세안 FTA(2007년) 등이 발효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614건이 출원되어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에는 1,053건이 출원되어 전년도에 비해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영농법인들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FTA가 발효된 이후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시장 개방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농산물과 품질을 차별화시켜 농업경쟁력을 높이려는 영농법인들의 브랜드개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농법인들의 상표출원을 지역별로 보면, 농업활동이 활발하고 이와 관련된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지역 영농법인의 출원이 1,1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976건), 경상남도(939건), 전라북도(819건), 경상북도(809건) 순이었다. 다출원 영농법인은 리더농산 영농조합법인 503건, 농업회사법인 풍년농산 110건,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 58건 순이며, 다출원 상위 20위에 속하는 법인 중 나머지 업체들은 평균 35건으로 다출원 1~3위 업체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표 1]

연도별 영농법인의 상표출원 건수 자료 :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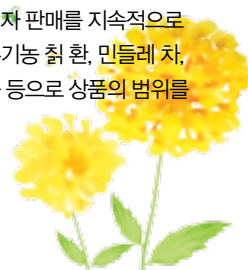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국내 영농법인의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시장 개방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농산물과 품질을 차별화시켜 농업경쟁력을 높이려는 영농법인들의 브랜드개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글 박진영 기자

상표출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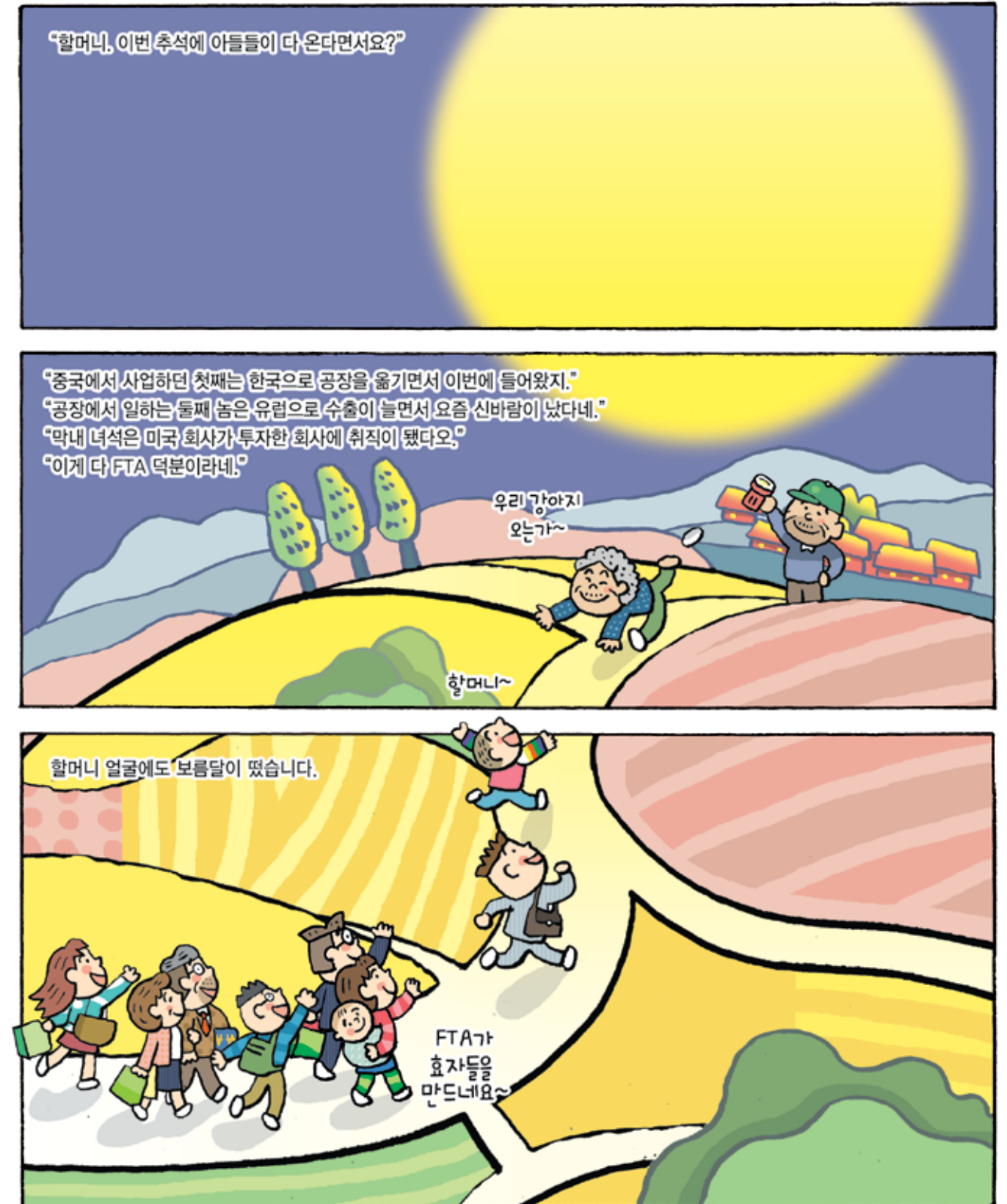
브랜드 키우면 경쟁력도 커진다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는 농가소득작목으로 흰 민들레를 육성해오고 있다. 주민들은 단순히 민들레 판매보다는 민들레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하면 농가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올해 2월 '올산민들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민들레 재배용 비닐하우스, 가공 사업장, 생산 라인 설치, 포장재 제작 등을 차례로 도입한 뒤 자체 상품에 '유기농 민들레 환' 브랜드를 부착하고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했다. 올산민들레영농조합법인은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기농 찹 환, 민들레 차, 홍씨리 관련 제품 등으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FTA,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안종만



FTA로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을 기원합니다.



FTA활용지원센터 중 처음으로 만들어진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설명회·교육·컨설팅·상담 외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전국 최초 센터...세분화된 교육이 장점

인천광역시에는 15만 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체만도 1만5,000여 개에 이른다. 남동공단 등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한 인천항, 인천공항 등을 통해 운수 및 보관의 물류업도 발달해 있어 FTA 활용에도 관심이 높다.

글 장승규 기자 사진 김가남 기자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전국 16개 FTA활용지원센터 설립 전인 2010년 1월 28일 인천상공회의소의 주도로 '인천FTA활용센터'로 시작됐다. 임기운 센터장은 "인천FTA활용센터가 전국 FTA활용지원센터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이 곳을 모델로 전국 16개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당시는 한·EU FTA와 한·미 FTA가 아직 발효되기 전이었으나 인천FTA활용센터는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처럼 갖 체결된 FTA 활용 교육은 물론 발효를 앞둔 한·EU FTA 활용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이하 인천센터)의 기본 활동은 타 센터와 마찬가지로 설명회·교육·컨설팅·상담이다. 대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그치는 교육과 달리 인천센터는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6시간짜리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세부적인 프로그램

이 특징이다. 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있는 성남까지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지역에서 별도의 원산지관리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 10월에는 인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FTA센터는 2010년 총 8회의 FTA 활용 설명회 및 교육을 개최해 245명이 참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총 27회에 걸쳐 1,288명이 참가하는 등 FTA 활용 설명회를 늘려가고 있다. 올해에는 FTA 원산지 증명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 사후검증 대비 교육 등 설명회를 총 32회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3개 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컨설팅 수는 줄었지만, FTA 체결국의 시장 설명회 및 시장조사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의 FTA 활용 성공 사례

이노와 정보공업이 말하는 FTA 활용은 이렇게!

원료 공급사 설득해 함께 교육 참여하면 효과 만점



이노

1

인천광역시 청천동에 소재한 이노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케이스 업체로는 드물게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전 세계 19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매출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하며 회사의 최대 수출 지역은 미주와 유럽이다.

이노는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부터 FTA를 준비를 해왔으나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이노에서 수출하는 품목은 한·EU FTA에서 부가가치 기준(MC 50)을 단일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 원재료인 플라스틱 공급업체로부터의 원산지 확인서 수취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난색을 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설명회와 교육에 공급업체를 설득해 함께 참가하고 FTA 컨설팅을 신청해 FTA 전문 관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더욱 높아지게 되면서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인증수출자 획득으로 EU 시장에 수출시 6.5%이던 관세가 철폐되었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향후 수출이 현재보다 최소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공업

2

정보공업은 1975년 설립돼 정밀가공 제품과 내마모 특수강 제품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한 회사다. 현재 국내의 4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영국·미국·일본·독일 등 세계적인 중장비 메이커의 순정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외 지역의 별도 판매 법인과 전 세계 35개국의 자체 딜러망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공업은 한·EU FTA 발효 전부터 EU 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던 업체였으나 한·EU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해 어렵듯이 알고는 있었지만 절실히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EU FTA 발효 이후 거래처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요구해 본격적으로 인증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으로 원산지관리 업무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전담자로 두기도 힘들어, 무역 담당 직원에게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서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하고 FTA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

이후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으로 EU 수출시 FTA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해져 앞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수출 증가율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인증수출자 인증 후 받게 될 관세 혜택을 따져보면 생산원가로 따졌을 때 최소한 3%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으로 기존 거래처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새로운 거래처 발굴시에도 인증 업체라는 이점을 활용해 더욱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가능해 졌다. 



안동규 한아름논산딸기랜드 대표

FTA는 제조업에게 좋고, 농업에는 나쁘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려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조업·농업을 떠나 경쟁력이 있으면 유리하고, 경쟁력이 없으면 불리하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충남 논산의 딸기는 최적의 기후와 토양으로 국내 최고의 당도를 자랑한다. 이 딸기의 맛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넘보는 토박이 기업이 있다.

글 이진원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딸기 가공식품 업체 한아름논산딸기랜드

한국의 딸기맛을 세계로! 중국·동남아에서 인기

논산은 일조량과 강우량이 딸기 재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전국 딸기의 15%를 생산한다. 논산 딸기는 당도가 높아 타 지역의 딸기에 비해 20% 비싼 값을 받는다. 그러나 딸기는 봄 한 철에만 출하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가공식품 등 산업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논산이 고향인 안동규 한아름논산딸기랜드 대표는 대한생명 CEO를 지낸 인물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재경향후회장을 맡아 고향과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 왔었다.

2004년 논산딸기축제를 찾은 안 대표는 당시 논산시장의 “꿀물 딸기로 잼을 만들면 농가소득도 오르고 고용창출도 된다”는 권유에 귀향을 단행해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딸기철에만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 인재 확보 등 어려움이 많았다. 연중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제품 개발에 매달려 딸기를 분말화해 딸기감을 만들고, 연이어 딸기 음료, 딸기고추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봄에 생산된 딸기는 영하 40도에서 신선하게 급속 냉동돼 연중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대기업과의 경쟁 피하고 수출에 집중

한아름논산딸기랜드 제품은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고품질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 대표는 “시중 딸기잼의 딸기 함량은 50%를 넘는 것을 보기 어렵다. 우리 제품은 딸기 함량이 65%로 35% 설탕 외에 구연산, 팩틴 같은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도 조금 더 비싸다. 고추장도 순창에서 전통 발효 방식으로만 만든다”고 말했다. 전화 및 인터넷 주문으로만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안 대표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 식품대기업에서도 OEM(주문자상표생산) 통과가 됐지만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으로서의 생존 방식으로 대신 선택한 것은 수출이다. 고급 제품 수요에 대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해외 고급 제품 수요로 돌파하기로 한 것. 지난해부터 일본에 딸기미용팩을 수출하고 있고, 올해 8월부터는 중국에 딸기감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딸기음료 50만 개 주문이 들어오는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입소문이 번졌다. 안 대표는 “한국과 FTA를 맺은 아세안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인구 10억 명이 넘는 큰 시장이다. 향후 FTA를 적극 활용해 시장을 넓히는 등 적극적으로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

“중소기업으로서의 생존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수출이다. 고급제품만큼 수요는 한정적이지만, 해외에도 그 수요가 있가 때문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딸기음료 50만 개 주문이 들어오는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고급 전사필름 제조업체 서울화학

4.5~6.5% 관세 철폐... “중국 업체와 제대로 붙을 것”

‘키보드의 글자는 어떻게 붙이는 것일까’ ‘원통형의 헤어드라이어에 찍힌 상표는 어떻게 찍은 것일까’ 평평하지 않은 곳에 인쇄하는 것도 아닐 테고, 티셔츠처럼 스텐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밀하다. 그 궁극증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서울화학에 가서야 비로소 풀렸다. 정답은 전사필름이었다. 원리는 ‘판박이’와 비슷하다. 얇은 투명필름에 그림을 인쇄하고, 부착할 표면에 그림을 문질러 붙인 뒤 필름을 떼어내는 것이다. 서울화학 정종석 대표가 보여주는 샘플들을 보면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바가지는 물론 약을 담은 통들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이런 플라스틱 제품용 전사필름은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분야로 국내 다른 전사필름 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고, 서울화학은 고급기술이 필요한 가구용, 건축용, 옥외용 제품들을 도맡고 있다. 가구의 경우 과거에는 페인트를 뿌리고 건조시키는 등 시간과 공간이 들었지만 지금은 전사필름으로 색을 입히면서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리, 금속도 페인트 대신 전사필름으로 색을 입히는 것이 일반화됐다. 특히 건축용의 경우 햇빛, 습기, 바람 등에도 변하지 않는 내구성을 지녀야 하므로 일반 업체들이 따라하기 힘든 기술이다.

전사필름, 15년 전부터 한국이 세계 시장 장악

1980년대 전사필름용 자재를 일본에 납품하던 업체에 종사하던 정종석 사장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983년 창업 후 인쇄기기를 변형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당시 일본 업체가 독점하던 전사필름의 국산화를 이뤘다. 전사필름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 업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15년 전부터는 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정 사장은 “기술은 한국이 독일을 거의 따라잡았고, 가격경쟁력도 갖춘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다. 서울화학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올해 5월 인증수출자 자격(한·EU FTA에서 필요)을 얻은 뒤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사필름은 ‘열전사지(stamping foil)’로 분류되는데 관세율은 한·EU FTA로 6.5%→0%, 한·미 FTA로 4.5%→0%로 각각 철폐됐다. 정 사장은 “요즘 경쟁이 심해 바이어 마진율이 10~20% 사이인데, 4.5~6.5%면 굉장히 크다. 중국 업체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FTA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

“전사필름은 ‘열전사지(stamping foil)’로 분류되는데 관세율은 한·EU FTA로 6.5%→0%, 한·미 FTA로 4.5%→0%로 각각 철폐됐다. 요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종석 서울화학 대표

한국 제조업의 강점은, 품질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면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 등의 기술강국과 저가를 무기로 세계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만큼 가격경쟁력은 중요하고 FTA는 필수적인 무기일 수밖에 없다.

글 이홍표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지난 60년 한국의 급속한 성장의 비결에는 수출이 있었고, 그 현장에는 수출 역군들이 있었다. 현재 한국은 본격적인 FTA로 제 2의 수출 중흥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옛 수출 역군들의 경험과 지혜를 'FTA 활용 컨설턴트'로 활용하기 위한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글·사진 우종국 기자

무역업 퇴직자 대상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역전의 '무역' 용사들... 'FTA 침병'으로 거듭난다

지난 9월 21일 서울 잠실 MBC아카데미 7층의 강의실에서는 제 1기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학생들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이상으로 이미 현직에서 은퇴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강의에 임하는 열정만큼은 젊은이들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진지했다. 지난 8월 27일 개강한 교육과정은 10월 12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6시간씩 이어진다. 대개 강사의 지루한 강의와 졸음을 참지 못하는 학생들의 하품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교육과 달리 학생들은 20년 이상의 해외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쏟아내기에 바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교육은 단순히 퇴직자를 위한 재교육 과정이 아니라, 무역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들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국가적으로 활용해보자는 의도에서 수강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해외 근무 경험이 보통 20년 이상씩 되다 보니 무역 업무에서는 다들 도사의 경지에 오른 인물들이다. 강사조차도 잘못된 내용을 지적당할까봐 긴장을 늦출 수 없을 정도다.

2013년까지 총 200명 양성 예정

'무역 관련 퇴직 인력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은 원산지 증명 이외에도 시장 개척, 마케팅, 물류 등 무역 전 단계에 걸쳐 FTA 활용이 가능한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개강식에서 "최근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 둔화 등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FTA 활용이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교육생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FTA 활용이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의를 총괄하는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은 "원산지 증명은 FTA 활용의 일부분이다. 이미 수출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관세사, 원산지관리사만으로도 충분하지만, FTA 활용 컨설턴트의 역할은 수출개척과 상담 등 보다 넓은 영역에서 효과적인 FTA 활용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1기 교육생 모집에는 선발예정인원(40명)의 3배인 126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중에 추가로 2기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2013년까지 총 2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양성된 컨설턴트는 정부가 주관하는 FTA 컨설팅 등에 참여시켜 현장경험을 쌓게 할 예정이며, 향후 기업의 상담 자문역, 기업 전문인력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FTA 활용 전문컨설턴트 경력별 선발 현황(총 44명)

구분	업무경력		기능					업종					
	기업무역 임직원	전문직	마케팅	국제금융	물류	관세	기타분야	자동차/부품	섬유/직물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타 분야	
명수	36	8	23	5	4	1	11	4	5	7	9	19	



교육생 3인의 인터뷰

“제 2의 인생, FTA 활용과 함께할 것”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무역 관련 유경험자로만 선발한 것에는 이들의 능력을 버리기 아깝다는 의도도 있지만, 수강생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의미다. 수강생들끼리 오가는 말이 있다. “다들 어느 공방에서 한 번씩은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수강생들 중에는 지역별로 중동, 중남미, 중국, 북미, 유럽 등 지역별로 현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기·전자, 조선, 화학, 소비재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전문가들이 교차된다. 비슷한 경험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 쉽게 통하고 할 말도 무궁무진해 수업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뒷풀이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정보 공유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제 2의 강의실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창 학구열에 불타고 있는 교육생 3인을 직접 만나보았다.

원종태 씨(57)는 20년 가까이 대우건설에서 리비아 등 중동 건설 현장에서 자재 관리, 물류 취급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다. 원 씨는 토목건설 분야 전문가로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FTA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재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중동붐이 일어나고 있는 현지점에서 “수출 입지원센터에서 물류 및 국제 플랜트 전문 컨설턴트로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왼쪽부터 원종태(중동/토목건설 전문가), 정현식(전기/영업 전문가), 김재훈(북미/전기·전자 전문가) 씨.

정현식 씨(56)는 1983년부터 (주)갑을 터키 이스탄불 지사장으로 섬유 영업을 하며 현지 법인 대표를 지냈으며, HS인터내셔널 그루지아 현지법인 대표로 버스엔진 영업을 하기도 했고, MGR 터키 현지법인에서 광고영업을 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주,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에서 해외 영업을 해온 정 씨는 “해외에서 쌓은 바이어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재훈 씨(53)는 한국외대에서 스페인어를 졸업한 뒤 삼성전자 멕시코 현지 생산 법인에서 전기·전자 부문의 생산 관리·구매·물류 등을 담당했고, 미국 판매법인에서도 근무했다. 특히 삼성인력개발원에서 다년간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교육 팀장을 맡은 경험을 살려 FTA 전문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김 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경험해 봐서 지방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호남, 영남 등 지역 중소기업들을 돕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mini interview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수강생의 경험은 공공재... 국가가 재활용해야”

강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은 그 자신도 LG상사에서 20년 넘게 해외 근무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는 이미 18년 전 해외 근무 때 NAFTA(미국·캐나다·멕시코 FTA)를 보면서 'FTA가 대체 뭐길래 관세도 없이 들어오나'는 궁금증 때문에 FTA를 홀로 연구하면서, 2000년 온라인 FTA포럼을 결성했다. 그에게 FTA 컨설턴트가 왜 필요한가를 물었다. “FTA는 원산지증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역의 작은 일부분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FTA를 활용하려면 전략과 전문성까지도 염두에 뒀야 합니다. 이를테면 해외에서 플랜트나 SOC를 국내업체가 뒀을 때 모든 자재가 한국산으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자재가 들어오는데, 그 나라가 체결한 FTA를 활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해외에 수출할 때도 바이어와의 협상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융합·협상·M&A·복합 프로젝트에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시각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 회장은 특히 “교육생들이 가진 20~30년의 노하우는 국가가 소중히 여겨야 할 공공재입니다. 이들은 FTA 시대의 우수한 자원이 될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인기

취업·이직 때 유리해…회사 입장에서도 ‘웰컴’

한국이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으면서 FTA 활용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들에는 FTA에 대해 지식이나 정보, 전문가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시작한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올해 9월 6회차 시험을 치르며 해마다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어 FTA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 우중국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원산지관리사 시험이 화를 거듭할수록 응시생이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 기간 3일…4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3일(24시간) 간 받아야 하며, 80% 이상 출석 시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교육은 ‘FTA 협정 및 법령(4시간)’ ‘수출입통관 실무(4시간)’ ‘품목분류 실무(8시간)’ ‘원산지결정기준(8시간)’이다. 성남에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로 교육이 이뤄 지지만, 전국적으로 순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순회 교육 일정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www.orig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소속 직원이 이 강의를 들으면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시 가산점(수강 1시간 당 2점)을 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기 위해 실무자가 교육을 받으 러 왔다가 내친 김에 자격증을 따는 사례도 많다. 본 교육비는 30만 원(교재비 6만 원 포함)이지만,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3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지난해까지 연 2회(6월, 9월) 치러지다 올해는 연 3회(12월 추가)로 늘어나 응시 기 회가 확대됐다. 시험은 수강 과목과 동일한 4과목을 1·2교시(총 120분)로 나눠 보게 되

며 4지 선다형 25문항으로 총 100문제를 풀게 된다. 각 과목별 평균점수 가 60점 이상이면 합격되며,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과 락)된다. 시험 일정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시험은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조정훈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한 기업이 수천 개지만, 아직 원산지관리사 자격자가 없는 회사가 많다. 회사 입 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를 뽑으면 편해지는 이점 이 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경쟁 자에 비해 취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은 ‘FTA 협정 및 법령(4시간)’ ‘수출입통관 실무(4시간)’ ‘품목분류 실무(8시간)’ ‘원산지결정기준(8시간)’ 등 총 24시간(3일) 동안 이뤄진다. 80% 이상 출석 시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대학생 FTA 프로그램

대학생 FTA 전문가 양성…취업 걱정 ‘뚝’

기업 활동에서 FTA가 필수 요건이 되면서, 기업에서도 같은 값이면 FTA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다. 이에 맞춰 대학생을 대상으로 ‘FTA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글 이후연 기자 사진 경기FTA활용지원센터



대학생 대상 FTA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FTA활용센터가 진행한 대학생 FTA 아카데미 2기 졸업식 모습.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에서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대학생 FTA 아카데미’ 1기를 진행한 데 이어 8월 2기생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지난 9월 1일 수료식을 가졌다. 경 기FTA센터에서 마련한 대학생 FTA 아카데미는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경기도 내 거주 대학생들이면 지원 가능 하다.

교육 과정은 총 5회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5회 중 3회는 성남에 위치한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서 실시하는 ‘원산지관리사’ 교육에 참여한다. 이 경우 원산지관 리사 교육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강 시 원산지관리사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원산지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에 필요한 실무자 의무 교육 시간을 인정 받게 된다.

3일에 걸쳐 원산지관리사 교육을 마친 뒤에는 2일에 걸친 실습 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FTA 활용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론적 으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정에서부터 기

업 실무에서 사용되는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 및 원 산지증명서를 작성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바 로 활용할 수 있는 FTA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경기FTA센터의 정석기 센터장은 “경기 FTA 아카데미를 통 해 대학생들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앞으로 중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FTA에 대응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 수 있 도록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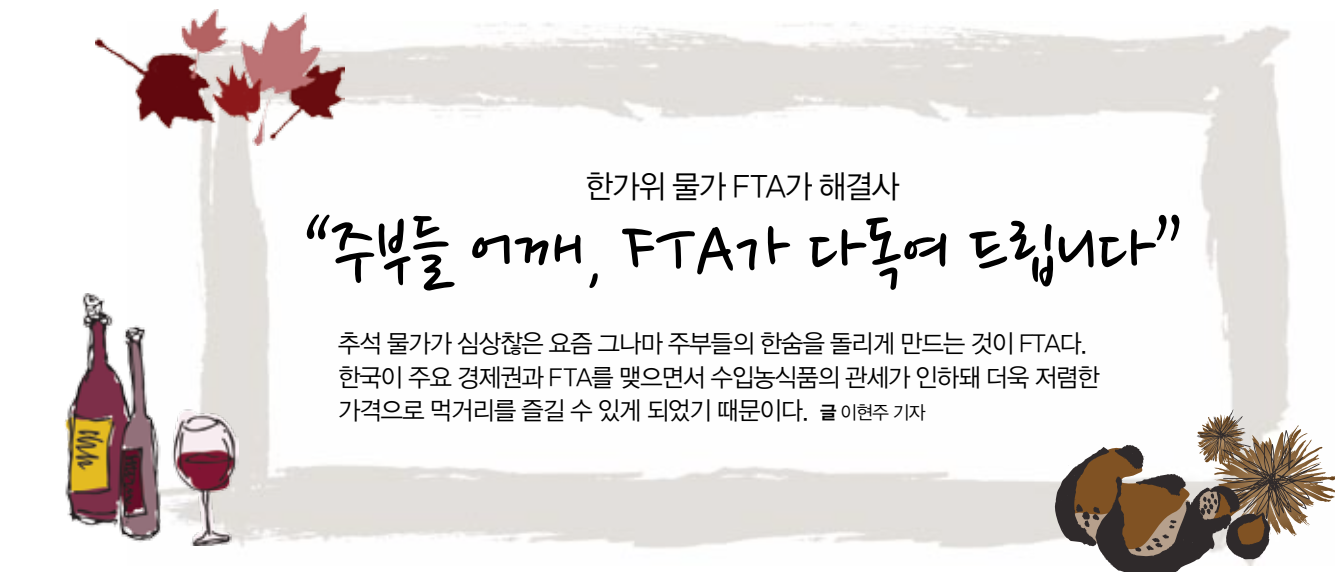
대학생 FTA 아카데미는 무료로 진행되며, 원산지관리사 수강 료(30만 원) 등의 비용은 경기FTA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다. [E]

인천FTA활용지원센터의 ‘FTA Go, Job Go’

FTA 활용 인력의 구인·구직 ‘해결사’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FTA Go, Job Go’ 프 로 그램은 FTA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FTA활용 능 력을 갖춘 대학생 구직자를 직접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9일 인천FTA센터와 인천세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FTA 일자리창출 박람회’에서는 FTA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14개 중소기업과 인천 소재 대학 재학생 33명이 한 자리에 모 여 구인·구직의 장(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명의 구직이 확정되었고, 이 학생들은 8월 20 일부터 한 달 동안 인천FTA센터·인천세관이 실시하는 FTA 전문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이수 즉시 해당 기업에 취업된다. 박람회에 참석한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FTA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영세수출기업과 대학생 실업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가위 물가 FTA가 해결사

“주부들 어깨, FTA가 다독여 드립니다”

추석 물가가 심상찮은 요즘 그나마 주부들의 한숨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FTA다. 한국이 주요 경제권과 FTA를 맺으면서 수입농식품의 관세가 인하돼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글 이현주 기자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 등을 위해 9월 10일부터 추석 성수품, 개인 서비스 요금 등 31개 품목의 가격을 일일 조사하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섰다. 중점 관리 기간은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이다. 9월 20일 중간점검 결과 채소와 과일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품목은 안정세에 힘입어 9월 10일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배는 9월 10일 대비 10%가 상승했고, 무 가격도 7.9% 증가해 농산물 전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9월 17일 한반도를 강타한 ‘산바’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다소 상승했는데, 8월 29일에 닥친 ‘블라벤’에 비해서는 물

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벤이 닥치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호박이 150% 상승, 상추가 71% 상승, 오이가 47.3% 가격이 상승했으나, 산바의 경우는 위 품목들이 각각 7.9%, 9.7%, 5.6% 하락했다. 다만 풋고추가 30.9% 오르며 김장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FTA 효과로 와인, 과일주스, 호두 저렴해져

이런 가운데 주부들의 어깨를 그나마 가볍게 해주는 것은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낮아지고 더불어 수입량이 늘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품목들이다. 미국산 와인(W사 C제품, 750ml)은 올 3월 초 한·미 FTA 발효 전 2만1,000원이던 가격이 FTA 발효 후 관세 15%가 즉시 철폐되면서 현재 가격 1만4,900원의 가격이 석 달째 유지되고 있다. 또한 관세 45%가 즉시 철폐된 포도주스(A제품, 950ml)는 FTA 발효 전 2,980원에서 인화된 가격 2,750원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 54%가 철폐된 오렌지주스(A제품, 950ml)도 FTA 발효 전 2,980원에서 발효 후 2,750원으로 내렸다.

건강식품 호두(300g)는 한·미 FTA 발효 전 7,800원에서 발효 후 관세 5%가 인하되면서 현재 6,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관세 인하폭보다 가격이 더욱 떨어진 것이다.

발효 후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한·EU FTA 수혜 품목들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유럽산 와인으로 유명한 M 와인은 지난해 FTA 발효 전 1만9,800원에서 발효 후 관세 15%가 즉시철폐되면서 가격이 12.1% 하락했다. 와인과 잘 어울리는 치즈(B사 R 치즈) 또한 관세가 소폭 인하되면서 발효 전 5,250원에서 발효 후 4,850원으로 7.6%가 인하되었다. [가]

한·미 FTA 품목		한·EU FTA 품목	
포도주스 (950ml)	발효 전 (2012. 3) 2,980원 발효 후 (2012. 9) 2,750원 관세율 (할매 시기) 45% (즉시) ↓ 7.7%	냉동삼겹살 (폴란드산)	발효 전 (2011. 6) 1,180원 발효 후 (2012. 9) 950원 25% (10년) ↓ 19.5%
호두 (300g)	발효 전 (2012. 3) 7,800원 발효 후 (2012. 9) 6,900원 30% (6년) ↓ 11.5%	와인 (M사 N 제품)	발효 전 (2011. 6) 1만9,800원 발효 후 (2012. 9) 1만7,400원 15% (즉시) ↓ 12.1%
자몽 (4~5입)	발효 전 (2012. 3) 7,980원 발효 후 (2012. 9) 6,980원 30% (5년) ↓ 12.5%	치즈 (B사 R 제품, 78g)	발효 전 (2011. 6) 5,250원 발효 후 (2012. 9) 4,850원 36% (15년) ↓ 7.6%

자료 : 기획재정부

미국에서 체험한 한·미 FTA

FTA 무관심 업체들, 적극적으로 돌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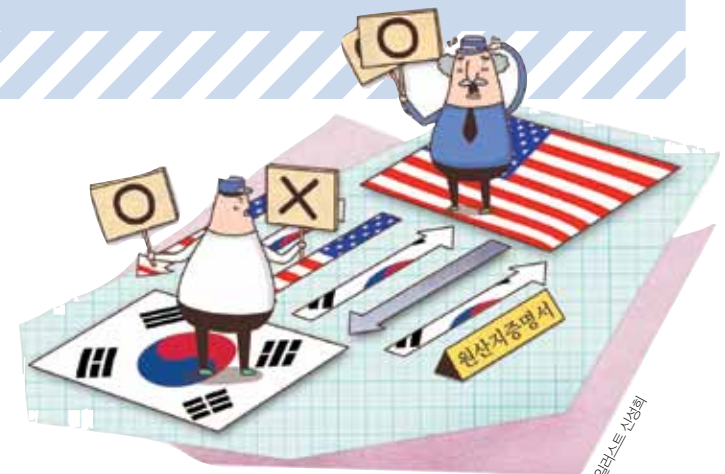
필자는 올해 한·미 FTA 발효를 약 2달 앞둔 1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FTA 컨설팅 회사로부터 한·미 FTA 세미나 강의와 컨설팅을 의뢰받고 미국에 도착했다. 한국 관세사로는 최초로 FTA 체결국에서 강의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드넓은 미국 땅에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올해 2월 초 LA한인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코트라 LA무역관, LA한인의류협회, LA한인식품상협회, aT LA지사, 미주중앙일보, 한미은행연수원 등을 순회하며 20여회에 걸쳐 세미나와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LA 한인 방송에서 한·미 FTA 특집 생방송에 출연해 2시간 강의를 진행했는데, 시청로 인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 FTA 담당자들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도움말을 해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현지에서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는 현재 뉴욕에 있는 관세관 1명에 이어 추가로 LA에 관세관 1명을 10월부터 파견할 예정이다.

FTA 강의와 컨설팅 병행, 현지 기업들 상담신청 쇄도

미국 내 한인 교포 200만 명 중 70만 명이 살고 있는 LA이다 보니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보다 FTA를 훨씬 먼저 체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FTA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한국→미국, 미국→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무조건 관세특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제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기초개념부터 확실히 각인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관세특혜 적용 조건 △품목분류의 중요성 △원산지결정기준의 정확한 이해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등 네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강의와 컨설팅을 병행했다. 이 강의를 현지 언론에 보도



되면서 FTA에 무관심하던 현지 수출입 기업들로부터 1대 1 맞춤형 상담신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FTA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 혜택 받지 않아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은 LA 자바시장의 의류업체였다. 이 업체는 청바지 원부자재를 과테말라로 보내 가공한 뒤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 한국으로 수출했는데, 한국 바이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았다. 얼핏 보면 미국에서 선적해 한국으로 수출했으니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질 만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불가였다. 그 이유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산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업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못하면 향후 한국 바이어가 자기 업체와 거래를 끊을 것이라며 좋은 방법이 없냐고 막무가내로 사정했다. 안타까웠지만 그 업체 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 주었다.

“계약체결과 이에 따른 선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FTA 적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인하 등을 조정하여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지 않으면 FTA가 대세인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FTA는 아는 만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FTA 활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

글 LA(미국)=송창호 관세사

동아시아 통상 환경 진단 및 전망

한·중·일 FTA로 태평양 시대 주도해야

최근 동아시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금년 5월 한국과 중국은 FTA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했으며, 금년 말까지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도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과 더불어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동아시아의 주요국들은 RCEP이라고 불리는 FTA 협상도 금년에 개시할 계획이다. **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중·일 FTA 협상이 연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 모습.

1990년대의 초반만 해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FTA 발효 건수로 보면, 한국은 미국, EU, 아세안 등과 8개의 FTA 협정을 발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아세안, 파키스탄 등과 9개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일본과 아세안은 각각 12건과 6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가 26.4%인데 반해 중국, 일본, 아세안이 각각 26.6%, 18.9%, 6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40페이지 별별랭킹 참고). 이처럼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지만 EU(86.0%)에 비교하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더욱 심화될 여지가 많다.

한·중 FTA로 한국의 수출 확대 예상

특히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한국을 제외하고는 동아시아 지역 내의 어느 나라도 미국 및 EU와 동시에 FTA를 맺은 나라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의 양자적인 협상과 한·중·일 및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뿐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관심이 높다.

한·중 FTA는 한국경제의 수출 확대 및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현재 대중 수출은 1,342억 달러로 전체 수출 중에서 24.1%를 차지했는데, 중국의 관세 및 교역 장벽이 제거되면 대중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동아시아 지역 내의 어느 나라도 미국 및 EU와 동시에 FTA를 맺은 나라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의 양자적인 협상과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뿐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관심이 높다.”



한·중 FTA는 한국경제의 수출 확대 및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상에서 다루어질 비관세 장벽, 투자 확대, 서비스 개방 등은 상품 개방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관세장벽의 경우 △과도한 통관 규정, △통관 절차의 지연, △통관 관련 법령의 사전고지 미흡, △원산지 증명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문제점들이 해소되면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중 FTA는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중국 수입품, 특히 농수산물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 수준의 설정 문제가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1단계에서 상품, 서비스, 규범 분야 등에서 협상 방식, 즉 모델리터를 결정한 후 2단계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할 예정이다. 특히 10월말에 개최되는 4차 협상에서는 품목군별 크기와 구체적 처리방안에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1단계 협상에서 ‘한·ASEAN FTA+’ 정도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한국 농수산물 중 민감 품목의 상당부분을 비켜갈 수 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전체품목의 약 7%를 5% 이하로 관세를 인하하는 일반 민감품목으로, 그리고 3%는 양허 제외나 관세 할당을 적용하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했으며, 나머지 90%는 일정기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상품양허 수준은 한국의 기체결 FTA 중, 한·인도 CEPA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타 FTA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상호 부담이 없는 품목을 우선 개방한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방을 시도하는 너무 낮은 수준의 FTA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FTA는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며, FTA 추진의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한·중·일 FTA는 동북아 지역의 갈등 해소하는 좋은 기회

한편, 한·중·일 FTA의 경우 세 나라 모두에게 무역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국간의 FTA 논의가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각국이 민감한 취약 부문(예: 한국과 일본의 농업, 중국의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였다.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 간에는 과거사문제, 역사왜곡 문제, 중·일간의 주도권 다툼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유럽의 경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접국간에 많은 정치사회적인 갈등을 겪었지만 경제통합의 과정을 통해 장애요인을 극복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생각해 볼 때 한·중·일 FTA협상은 동북아 지역의 갈등요인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은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 RCEP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하였다. 협상에 참여한 주요국들은 이미 아세안과 FTA를 맺은바 있기 때문에, 아세안은 기존에 체결한 FTA의 협상방식과 내용의 유사성을 토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협상에서 낮은 수준의 시장접근 양허안이 논의가 되고 기존에 아세안과 맺은 원산지협정의 기준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발전단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접근분야의 양허 수준 및 무역 규범의 내용과 관련한 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경쟁과 한국의 전략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실리 찾아야

지난 몇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경제통합 논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10년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된 TPP는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2011년 11월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지역 차원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기본 틀을 채택해 오는 11월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글 임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
APEC 연구컨소시엄 연구원

환태평양파트너십(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은 2005년에 결성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SEPA: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확대된 구조다. TPSEPA는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며, 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칠레 4개국으로 구성되어 P4(Pacific 4개국)라고도 불린다. 2012년 현재 P4를 포함하여 미국·호주·말레이시아·페루·베트남 9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9개국의 국내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협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RCEP(ASEAN Framework o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ASEAN+6(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으로 16개국이며, 현재 11월 협상개시 선언에 맞춰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국은 국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교역의존도 '아세안+6' 47%, TPP 22%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아태지역은 세계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1년 기준 ASEAN+6의 교역규모는 10조1,000억 달러로 세계교역에서 27.7%를 차지하며 TPP는 7조6,000억 달러로 20.7%를 차지한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 또한 2010년 기준 ASEAN+6은 49.6%이며, TPP는 30.5%이다. 한국의 교역 의존도는 2011년 기준 ASEAN+6의 경우 47.3%이며, TPP의 경우 22.2%이다. 이와 같이 ASEAN+6과 TPP 협상 참여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의 이 경제블록에 대한 교역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경제통합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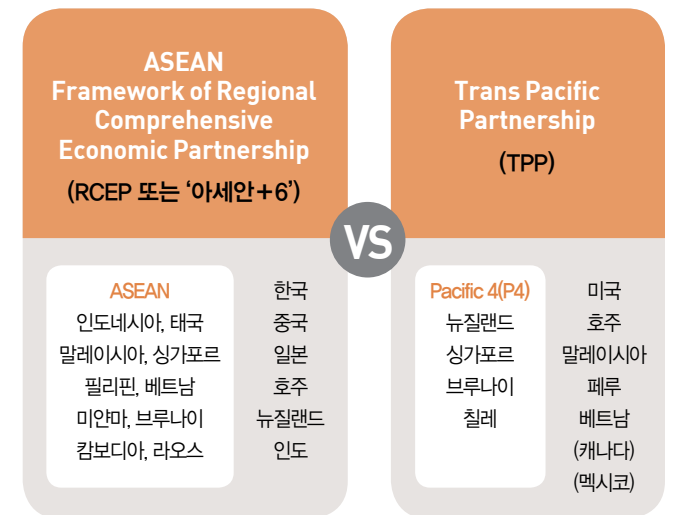
아세안은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적·경제적 협력체로서 최초의 상징성을 지니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논의는 중국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오며 따라,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아세안+6' 논의를 주도하는 경쟁구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경쟁구도에 따라 아세안 차원의 협력과 통합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부진하게 되면서 아세안은 점차 구심점을 잃게 되었다. 또한 TPP의 등장은 동아시아 지역협력구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동안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 미국의 포괄적인 영향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은 동아시아에서 아세안 중심의 경제통합 논의를 이끌기 위해 아세안 FTA 상대국과의 보다 폭넓고 깊은 연계(broader and deeper engagement)를 지향하는 RCEP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RCEP은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를 아우르는 최빈개도국 우대조치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형평성 있는 아세안 경제성장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빈개도국과 중국, 인도 등 국가 간 경제발전 격차가 커서 그 동안 아세안이 추진해 온 FTA의 90% 상품관세 철폐보다 높은 95% 상품관세 자유화 조치에 대하여 협상 참여국들이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견제하고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확장하고자 TPP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TPP는 원산지·환경·전자상거래·규제 조화·개발·투명성 등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를 포괄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 철폐, 지식재산권 강화, 정부조달의 투명성 강화, 포괄적인 시장 접근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TPP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미국 주도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2011년 APEC 개최국으로서 21세기에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를 비롯해 미국의 통상 해법을 찾는 핵심의 장으로 APEC을 활용하는 한편, TPP를 APEC이 지향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의 실질적 달성 경로로서 명분을 공고히 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참여국이 늘어남에 따라 P4 수준의 자유화 달성보다는 미국의 기체결 FTA 자유화 수준으로 TPP 협상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RCEP과 TPP 비교



RCEP		TPP
27.7%	전 세계 교역 비중	20.7%
49.6%	전 세계 GDP 비중	30.5%
47.3%	한국의 교역 의존도	22.2%

한·중·일 FTA 추진해 한국의 입지 강화해야

특히, TPP 협상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RCEP 협상에 참여하고 한·중·일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미묘한 경쟁구도에서 한국은 우선 한·중·일 FTA를 포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 논의를 꾸준히 이끌어 가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경제통합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고심해 봐야 한다. '아세안+3' 민간연구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아세안 경제통합 논의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잃지 않도록, RCEP 협상에 참가해 한·아세안 FTA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FTAAP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그 동안 FTAAP 달성을 위해 APEC 지역경제통합 연구와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확대·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라 새로운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면서 FTAAP 논의에 기여하는 것이 안정적인 장기 전략이라 할 수 있다. [1]

※본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FTA 활용 필수 상식 완전 정복

동일 품목은 동일 세번으로 관리해야

한국이 세계 45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황이지만,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복잡하고 귀찮다 보니 FTA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차근차근 지식을 쌓다 보면 FTA 활용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글 이만선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01 경합세번이란?

프린터용 리본을 수출하는 A 기업은 그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요청에 의해 한 바이어에는 961210(‘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의 HS코드)으로, 또 다른 바이어에는 844399(‘프린터나 복사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HS코드)으로 세번을 기재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두 세번 모두 무관세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

원산지 증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확한 품목(HS코드) 분류다. 그런데 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는 것이

세번 분류일 정도로 까다로운 부분이다. 위의 경우처럼 양쪽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경합 세번’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특히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세율이 다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향후 사후검증 시에 동일한 품목을 두 가지 세번으로 수출하고 있으면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동일한 세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전문가(관세사) 질의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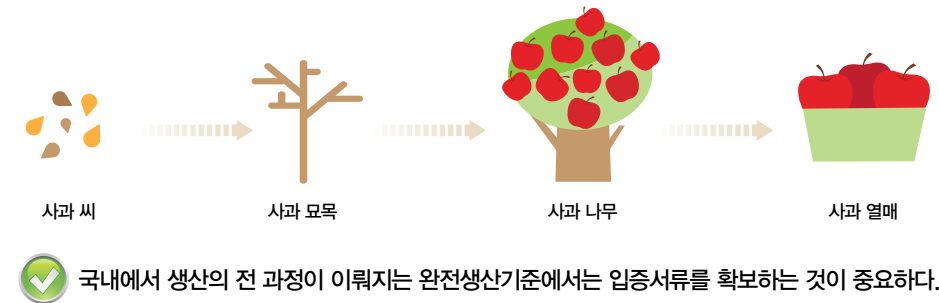


동일한 품목은 동일한 세번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후 검증 시 신뢰도를 줄 수 있다.

02 ‘완전생산기준’일 때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사과를 직접 재배해 수출하는 B 씨는 원산지 증명에는 자신이 있었다. 자신이 직접 씨를 심어 묘목을 키워 사과를 재배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니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당연히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려는 순간 한국산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스스로 모든 과정을 다 해치우다 보니 누구에게서 원산지 확인을 받아야 할 지 막막했던 것이다.

제조업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1차 산업에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곡식, 과일, 야채, 수산물, 축산물처럼 재배의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다. 그러나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이 경우 수매확인서, 표준규격출하확인서, 원양어획반입신고확인서 등의 서류들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FTA 활용은 입증이 가능해야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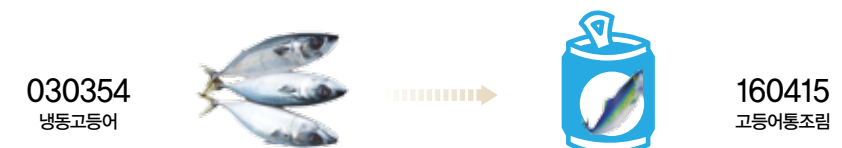


03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 어떻게 다른가?

FTA의 적용을 위해서는 체결 당사국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품과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의 가격, 제조경비,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적용이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간 마찰의 소지가 많다(임의적인 가격조정 개연성, 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른 원산지 변화). 이를 부가가치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은 너무 복잡하고 입증이 힘들다 보니 이를 대신하기 위해 나온 것이 세번변경기준이다. HS품목분류체계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므로 번호가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게 되어 체결 당사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제정이 용이하고 HS 코드가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번변경기준이 더 중요해지는 분위기다. 한·EU FTA, 한·미 FTA 경우를 보면 부가가치기준이 있어도 세번변경기준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냉동고등어(030354)의 경우 가공을 거쳐 통조림(160415: 훈제, 압력 열처리 등 조제 및 밀폐용기 포장)이 되면 2단위(첫 두 자리) 세번변경이 되었으므로 원산지를 인정하게 된다. 물론 품목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므로 세번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세번이 변경되면 FTA 체결 당사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세번변경기준이다.

순회 FTA 지역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FTA 시장 적응력 강화 지속 추진

기획재정부는 FTA 시장 정보력과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광역시·도 및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순회 FTA 지역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9월말 현재 7회(대전·천안·인천·원주·수원·경산·김해)의 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관심사항인 원산지 관리 방법 및 절차, 미국·EU 등 글로벌경제의 침체 속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타깃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시장 진출 전략, FTA-PASS 등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시장 적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시장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순회 FTA 지역 설명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8월 이후 개최된 지역설명회(수원·경산·김해 등 3회) 부터는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FTA를 활용한 수익창출 전략' 특강을 신설해 어려운 세계 경제여건 하에서도 역발상적 인식 전환으로 수출 활로 개척과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중 개최되는 울산광역시(자동차 업종 중심), 광주광역시(광(光)산업 중심),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업단지(제조업 중심) 등 3회의 설명회를 통해서도 중소기업 CEO, 유관기관 종사자, 자치단체 공무원 등과의 정책 소통을 통해 FTA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는 8월 1일 서명된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8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터키 FTA는 유럽인구 2위(2011년 기준 7,37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터키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함께, 우리 기업의 유럽·중동·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한·콜롬비아 FTA가 8월 31일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이윤영 외교통상부 FTA교섭국장과 하비에르 감보아(Javier Gamboa) 통상산업관광부 FTA교섭대표 간 가서명되었다.

양국은 앞으로 정식 서명 및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상기 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가서명된 한·콜롬비아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외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한글본은 번역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한·중·일 FTA 국제세미나 개최

3국 FTA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제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월 19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과 공동으로 '한·중·일 FTA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2년 9월 19일(수)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과 공동으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중·일 FTA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중·일 FTA 정부협상이 연내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해 3국 FTA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채욱 원장의 개회사와 신봉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총장의 축사,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의 기조연설에 이어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시각 및 전망(제1세션) △안보 및 외교 정책 측면에서의 시사점(제2세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제1세션에서는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사회로 장치 중국발전연구중심 부국장과 카즈모토 아베 도쿄덴키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제1세션의 토론자로는 김시중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 양 쉼위안 1등 서기관(주한 중국대사관), 이케다 요이치 경제참사관(주한 일본대사관)이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이영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제2세션의 토론자로는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 마츠가와 루이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이 참여했다.

한·베트남 FTA 제1차 협상 개최 협상운영세칙 채택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베트남 부회황(Vu Huy Hoang) 산업무역부 장관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9월 3일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FTA를 비롯한 양자 통상 관계 증진 방안 및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9월 3~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통상장관 배석 하에 한·베트남 FTA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향후 협상의 범위, 구조, 일정 등의 지침이 되는 협상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채택했다. 한·베트남 FTA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및 기타 규범 분야(무역구제, 지적권 등)를 포함해 한·아세안 FTA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추진하기로 합의되었다.

양국은 잠정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경제협력, 법률 및 제도적 이슈 등 총 6개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수석대표간 합의를 통해 작업반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은 잠정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 베트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9월 3~4일 한·베트남 FTA 1차 협상이 시작되면서 양국의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를 매혹시킨 한국 영화의 힘

2012년 9월 8일, 베니스에서 낭보가 들려왔다.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의 대상 격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것이다. 한국영화는 지금껏 세계 3대 영화제라 일컬어지는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서 배우상과 감독상을 받긴 했지만 단 한 번도 황금사자상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이번 수상은 세계 영화계에 한국 영화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전혀 뜻밖의 소식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영화는 세계 각국의 영화제에 초대되며 많은 영화인들로부터 격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그 해 이창동 감독은 '오아시스'로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어 2004년에는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가 베

작품과 감독에 이어 한국의 배우들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 할리우드까지 주목하고 있는 한국 영화와 한국 영화인의 현주소를 짚어보았다.
글 이현주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를린 영화제 감독상을,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4년의 이 같은 수상 실적은 실로 한국 영화계는 물론 세계 영화계에도 놀라운 결과였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 감독이 모두 주요 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특히 김기덕 감독이 두 작품으로 연거푸 감독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이후로도 한국 영화는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다양한 수상 기록을 세웠다. 2007년 칸 영화제에서 배우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2009년 칸 영화제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박쥐'가 심사위원상을, 2010년 칸 영화제에서는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각본상을, 홍상수 감독의 '하하'가 '주목할 만한 시선 상'을 수상했다.

상업영화, 예술영화가 공존하는 한국 영화 시장

세계의 영화인과 영화팬들이 한국 영화에 가장 놀라는 점은 한국 영화가 급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것과 또 동시대에 저마다 다른 스타일을 확립한 감독과 작품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예술성이면 예술성, 오락성이면 오락성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의 영화를 연이어 선보임으로써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실제로 국내 1,000만 관객을 달성한 '도둑들'과 칸 영화제의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피에타'가 극장에서 동시에 상영되고 있다는 것은 예술성과 상업성이 조화된 한국 영화계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영화는 해외 시장에서 감독, 배우들에 대한 관심도 촉발시켰다. '올드보이' '박쥐' '복수는 나의 것' 등으로 세계 영화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박찬욱 감독은 현재 할리우드에서 영화 '스토키'를 찍고 있고, '악마를 보았다'의 김지운 감독은 '라스트 스탠드'의 연출을 맡았다. 이 외에도 봉준호 감독이 연출을 맡은 '설국열차' 역시 세계 각국의 영화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감독들에 이어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도 계속되고 있다. '닌자어쌔신'의 주연을 맡았던 비(정지훈)를 비롯해서 '지.아이.조-전쟁의 서막'으로 인상 깊은 할리우드 데뷔를 한 후 '지.아이.조 2'와 2013년에 개봉 예정인 '레드 2'에 출연한 이병헌, 톰 행크스와 할리 베리, 휴 그랜트와 함께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주연을 맡은 배두나 등은 영화관계자와 평론가들 사이에서 출중하고 깊이 있는 연기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FTA와 문화 교류는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FTA를 통해 우리 문화의 힘이 더욱 강성해질 수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연이은 할리우드 진출로 한국 영화의 힘 증명

한국 영화계가 국제 영화계에서 연이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영화 수출, 해외영화제에의 출품 등 세계 영화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즉, 지금 대한민국 영화계의 성장은 내적 발전뿐 아니라 외적인 문화 교류의 힘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우수한 퀄리티로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 영역을 넓혀가는 지금의 대한민국 영화계를 보고 있노라면, FTA로 경제교류의 폭을 넓히고, 경제영토를 확장시켜 가는 대한민국 경제계와도 사뭇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상품을 접한 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게 되고, 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한국 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듯, FTA와 문화 교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FTA를 통해 우리 문화의 힘이 더욱 강성해질 수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앞으로 무역과 문화 융합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진지한 연구와 노력이 이어진다면 FTA와 문화 교류의 긍정적이고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K]

추석과 닮은 듯 다른 세계의 추수감사절

이름은 달라도 추수의 기쁨은 세계 만국 공통

나라와 민족, 인종은 달라도 풍성한 곡식의 수확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 우리에게 추석이라는 것처럼 FTA 이웃들에게도 추석 및 추수감사제 등의 축제가 있다. 세계 각국의 추석 및 추수감사절, 어떤 모습들일까? 글 박진영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추수감사절 이틀 전에는 뉴욕에서 메이시 백화점이 주최하는 초대형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칠면조구이가 빠지면 섭섭한 미국의 추수감사절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 함께 맞이하는 추석처럼, 미국의 추수감사절 역시 가족들이 한데 모여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나누는 대명절이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우리네가 보통 2~3일씩 추석 연휴를 갖는 것처럼 미국인들 역시 이 시기에 보통 짧게는 3~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갖게 된다.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에 정착할 당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에는 초기의 청교도들이 먹었던 칠면조구이와 호박파이를 먹는다. 재미있는 점은 매년 미국 백악관에서는 추수감사절 전날 칠면조 한 마리를 선정하여 '특별사면'함으로써 추수감사절 식탁 위에 오르지 않도록 배려를 해 준다는 점이다. 크리스마스 다음가는 대형 명절인 만큼 추수감사절 앞뒤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 특히 추수감사절 이틀 전에는 뉴욕에서 메이시 백화점이 주최하는 초대형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Thanksgiving Day



서로 닮은 중국과 베트남의 추석

중국이나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음력 8월 15일에 추석 명절을 쇠나. 중국의 추석은 '중추절(中秋節)'이라 하는데, 가을의 중간에 있다 하여 그리 이름 붙여졌다. 중추절에는 달에 제사를 지내고, 또 달 구경을 하는 것이 중요한 행사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월병을 먹으며 보름달을 감상하곤 한다. 달맞이와 월병을 즐긴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추석인 '쑹투(Trung Thu)'는 중국의 중추절과 많이 닮았다. 쑹투는 흔히 서양의 할로윈(Halloween)과 추수감사제를 하나로 합친 형태로 특히 어린이 관련 행사나 축제가 많아 베트남 어린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 중 하나다. 사자춤 행렬, 연등행사, 가면 만들기, 놀이기구 만들기 등 어린이도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아이들은 별, 나비, 물고기 등 다양한 모양의 랜턴을 들고 저마다 전통가면을 쓴 채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기도 한다.



축제로 가득한 독일 추수감사절



독일의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그 시기도 다르고 축하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추수감사절을 하나의 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같다. 포도, 감자, 밀, 맥주 등의 특산물에 따라 저마다 다른 축제가 열린다. 그 중 10월 상순경에 펼쳐지는 노이슈타트 축제(Neuschta)는 그 규모도 클뿐더러 가장행렬 등의 볼거리가 많아 독일이며 유럽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 독일의 다양한 추수 관련 축제들 중에서도 추수감사제와 가장 비슷한 것이 뮌헨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로,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이르기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각종 퍼레이드 및 맥주 관련 이벤트들이 성대하게 펼쳐진다. 한편, 매년 11월 11일 11시 11분부터 3개월 동안 열리는 사육제는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추수감사 행사로 가장무도회를 비롯해 각종 주류 시음회 및 토속음식 시식회 등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나눈다.



비, 구름, 소에게 감사 전하는 인도

인도의 추수감사제는 10월의 우기 때부터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얻는 매년 1월 중순쯤에 열린다. 나홀 동안 신년축제가 추수감사제가 펼쳐지는데, 첫째 날에는 비와 구름의 신인 '인드라'에게 기도를 올린 뒤 낚은 옷은 장작불에 태우고 그 주위를 돌며 춤추고 노래한다. 다음 날에는 한 해 동안의 번영을 기원하며 신선한 우유를 끓여 넘칠 때까지 끓인다. 또 새 항아리에 햅쌀을 넣어 신에게 공양한 뒤 그 쌀로 밥을 지어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다. 삼일 켜에는 1년 농사를 함께한 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로, 이날 소들은 목욕부터 털 손질 등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마지막 날에는 풍작을 기원하는 축복의 날로, 이때 각 동네마다 다양한 마을 잔치가 펼쳐진다.

추수감사절과 FTA



중국·미국 '대목'에 한국 업체 웃는다

중국 중추절을 앞두고 한국의 명동거리에는 중국 쇼핑객들로 넘쳐난다. 직접 국내에 찾아오는 쇼핑객들뿐 아니라 국내 온라인마켓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 주문도 급속히 늘어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원래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크리스마스 다음 가는 대형명절로 최대의 쇼핑시즌으로도 유명하다. 일례로, 지난해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의 소비만큼은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여 추수감사절의 소비심리는 여전한함을 보여주었다. 미국 추수감사절의 다음날인 금요일을 '검은 금요일(Black Friday)'라고 부르는데, 이는 소매업체의 1년 매출 중 약 70%가 이날 이뤄지기 때문에 1년 중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반가운 대목이 될 수 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그만큼 인터넷 쇼핑 시스템이 발달한 한국의 인터넷쇼핑을 이용해 직접 주문하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다양한 품목들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없어진 만큼 지금까지보다 좀 더 비약적인 수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주 인기...전통주·막걸리도 각광

차세대 한류, 이제는 술이다

때로는 사케보다 섬세하고 때로는 와인보다 중후하고 때로는 보드카보다 더 짜릿한 한국 술이 새로운 음식한류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술, 왜 사랑받을까?

글 이현주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처음 한류열풍을 일으킨 한국 술의 주인공은 바로 '소주'였다. 국내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가 '진로(JINRO)'라는 브랜드로 일본에 진출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일본 소주시장에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7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것이다. '진로'는 일본에서 단일품목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첫 한국상품으로 지금까지도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특히 '진로'는 일본에서 바(BAR)나 레스토랑에서도 팔리는 고급 주류로 인식되면서 한국 술의 가능성을 재조명하게 한 첫 주자였다.

이후 한국의 소주는 전 세계 70여 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톡 쏘는 알싸한 맛으로 세계 주당들에게 사랑받았다. 최근 들어서는 몽드셀렉션(Monde-Selection)이나 국제주류 품평회(International WIN and Sprit Competition)와 같은 세계적 주류품평회에서 한국 산 소주들이 연이어 상을 받음에 따라 세계적으로 품질을 공인받았다.

현지화 마케팅으로 막걸리 매력 전파

한국 소주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인기를 높여가고 있는 한국 주류업계의 스테디셀러라면, 막걸리는 최근 몇 년간 새롭게 떠오른 한국 주류업계의 뉴 스타라 할 수 있다. 음식만 아니라 주류업계에도 '웰빙' 바람이 불면서 '몸에 좋은 술'로 세계 속에 그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막걸리는 매년 눈에 띄는 수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막걸리 수출액은 2010년 1,910만 달러에서 2011년 5,274만



세계 주류 시장에서 한국 소주가 '스테디셀러'라면, 막걸리는 최근 떠오른 '뉴 스타'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은 뉴욕 타임 스퀘어에 전시된 막걸리 광고(왼쪽)와 국내에서 열린 막걸리 시음회 모습.



달러로 경충 뛰었다. 무엇보다 막걸리는 K-팝이나 한류드라마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은 일본과 아시아의 한류 팬들을 중심으로 먼저 팔려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2011년 일본 내 서울막걸리 광고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한류스타 장근석 때문에 일본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막걸리 붐이 인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의 히트로 인기몰이를 시작했던 장근석은 막걸리 광고에서의 호연으로 이른바 '막걸리남'으로 불리며 일본 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2011년 한 해 동안 장근석이 광고한 이 제품은 무려 200억 원 이상이 팔려나가며 핫이슈가 되었는데, 이 같은 한국 막걸리 열풍은 2011년 말 일본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유행정보지 '일경 트렌디'의 '2011년 히트상품 베스트30'에서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등에 이어 7위에 '막걸리'를 선정되게 하였다.


막걸리 열풍이 인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한류 붐과 함께 자연스럽게 막걸리 매력도 전파되었는데, 특히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막걸리 맛을 조절한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더욱 높은 수출 신장세를 이뤘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알코올 도수는 유지하되 단맛과 탄산을 강화해 젊은 고객층과 여성고객층에게 크게 어필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존 6도의 알코올 도수를 4.5도로 낮추고 단맛을 더 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췄다. 이 외에도 과일 맛을 선호하는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복분자 막걸리와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필리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생막걸리 등도 모두 각 지역별 소비자 기호를 맞춰 좋은 성적을 낸 우리의 막걸리 제품들이다.

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다. 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도 '라이스 와인'이라 이름 붙여진 막걸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그 수를

불러 가고 있다. 특히 육류요리를 즐겨먹으면서도 아직도 웰빙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미국에서는 육류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맛이면서도 동시에 건강에 좋은 라이스 와인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향후 대미 수출 증대는 더욱 기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1리터당 3센트의 관세를 내야했지만, 한·미 FTA 이후 관세가 완전 철폐되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커졌기 때문이다.

형성된 붐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관건

막걸리 외 다른 전통주들도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와인이나 증류주를 좋아하는 유럽·미국 주당들에게 복분자주나 백세주, 전통 증류식 소주와 같은 우리 전통주들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전통주들은 몸에 좋은 재료들로 다양한 맛의 세계를 선보이고 있기에 히트 가능성은 더욱더 무궁무진한 편이다. 전통주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전통주를 빚는데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도 더 많이 소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주 수출로 주류업계뿐 아니라 농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우리 술을 세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 맛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만한 맛의 개발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식과 가장 궁합이 맞는 술, 한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숨은 매력을 이끌어내는 존재로서 한식과 함께 발전하고 세계화를 향한 노력을 거듭한다면 분명 한국 술은 차세대 한류 주자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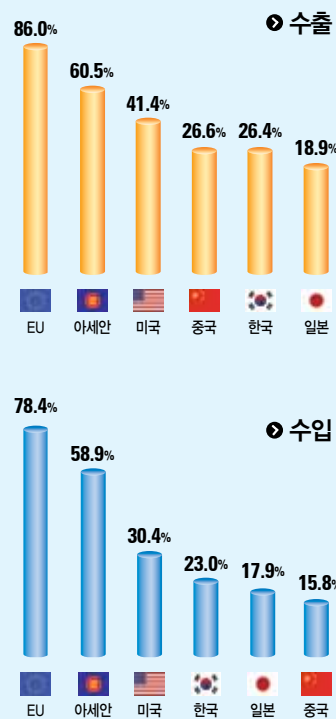
주요국의 FTA 교역 비중 랭킹 6

FTA 교역 비중 EU가 가장 커

글 이후연 기자



주요국의 FTA 교역 비중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미국, 아세안, 중국, 일본 등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요국(또는 경제권)들의 FTA 교역 비중은 얼마나 될까? 'FTA 교역 비중'은 전체 수출입 중에서 FTA를 체결한 나라들과의 수출입 금액 비중을 뜻한다. 2011년 수출입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EU가 수출 86.0%, 수입 78.4%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EU는 1971년 OCTs(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 EU 회원국들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19개 지역)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FTA를 시작해 현재 28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인도, 아세안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과는 FTA를 맺고 있지 않아 실제 경제 영토(=자국과 FTA 발효국의 GDP 합계 ÷ 전 세계 GDP 합계 × 100)는 33.4%에 그친다(2010년 기준). EU의 FTA 교역 비중이 크게 나온 것은 EU 역내(27개국) 교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FTA보다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FTA 교역 비중에 포함된다.


한국의 FTA 교역 비중 2004년 이후 크게 늘어

다음으로는 아세안으로 FTA 교역 비중은 수출 60.5%, 수입 58.9%다. 아세안은 FTA 발효국이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와의 5건뿐인데, 아세안 역내(10개국) 교역 비중이 높아 FTA 교역 비중이 높게 나온다.

세 번째는 미국으로 수출 41.4%, 수입 30.4%다. 미국은 이스라엘(1985), NAFTA(1994)를 비롯해 총 13건의 FTA를 발효하고 있는데, 캐나다, 멕시코와의 NAFTA 교역 비중이 매우 높다. 아세안, 중국, EU,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를 맺고 있지 않아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FTA 교역 비중이 높게 나오지 않는 편이다.

네 번째는 중국으로 수출은 26.6%, 수입은 15.8%에 그친다. 중국은 홍콩·마카오 CEPA 등 9건의 FTA를 체결·발효하고 있는데, 아세안을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 EU처럼 큰 경제권과는 FTA를 맺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제영토는 16.1%다.

다섯 번째는 일본으로 FTA 교역 비중은 수출 18.9%, 수입 17.9%다. 일본은 싱가포르(2002년), 멕시코(2005년) 등 13건의 FTA를 체결·발효하고 있는데, 역시나 중국, 미국, EU 등 아세안을 제외한 거대경제권과는 FTA를 맺고 있지 않아 경제영토는 17%에 그친다.

한편, 한국의 FTA 교역 비중은 수출 26.4%, 수입 23.0%로 주요국 중 EU, 아세안, 미국, 중국 다음 순으로, 일본보다는 높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첫 번째 FTA를 맺은 2004년에는 FTA 교역 비중은 수출 0.3%, 수입 0.9%였지만 이후 아세안, EU와 같은 거대경제권과 FTA를 맺으면서 교역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세계로 가는 열린 시장의 기회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전 세계적으로 FTA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45개국과 FTA를 발효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FTA 허브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천 FTA활용지원센터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FTA 시대에 적극 대응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야깁 없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좋은 파트너 FTA활용지원센터가 귀하의 더 큰 도약을 지원합니다.



032-810-2854

인천 FTA활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7 인천상공회의소 6층

전국 15개 지역에 FTA활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역별로 다양한 FTA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경기 1688-4684 대구 053-751-5765 부산 051-990-7082 울산 052-287-3060 광주 062-350-5864 대전 042-480-3042 전북 063-711-2045
전남 061-282-9774 강원 033-256-3068 충북 043-229-2721 충남 041-539-4542 경북 054-454-6601 경남 055-210-3043 제주 064-757-2164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P) **A+** '12.9.

A '05.7.

BBB+ '01.11.

BBB '99.11.

경제 올림픽 그랜드슬램 달성!



(피치) **AA-** '12.9. : '12.8. **Aa3** (무디스)

'10.4. **A1**

A+ '05.10.

A '02.6.

'02.3. **A3**

BBB '99.6

'99.2. **Baa3**

BB+ '98.2

'97.12. **Ba1**

우리만 또, 또 올랐습니다!

Aa3 (무디스), **AA-** (피치), **A+** (S&P)

국가신용등급 그랜드슬램 달성!

역대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日·中을 앞지르고 신용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는 물이 달라지고,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위풍당당 한국경제!!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